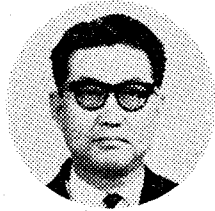


# 發明獎勵事業의 活性化方案

## — 支援体制의 一元化緊要 —



田 峻 恒

<大韓辨理士會 會長>

### ① 發明獎勵의 意義

自由經濟體制下에서 資本, 勞動, 土地(資源)와 더불어 生産性을 높이는 函數的 要素는 技術이라 일컬어지며 따라서 技術進歩는 經濟發展을 主導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先後進國을 구별하는 基準으로 國民所得이나 貿易規模의 大小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技術進歩가 그 나라 經濟成長에 미치는 寄與度의 大小에 따라 선 후진국의 判斷基準을 삼는 것이 妥當하다는 見解가 抬頭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技術進歩를 뒷받침하는 發明特許의 登錄件數가 많은 국가이면 先進國이 될 수 있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最近의 國際統計(1979年)에 따르면 發明특허의 登錄件數는 美國이 48,853건, 日本 44,104건, 프랑스 24,618건, 西獨 22,534건, 英國 20,800건인데 비해 韓國이 1,419건, 멕시코 2,026건, 홍콩 893건, 싱가포르 736건 등 懸隔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가하면 先進國일수록 自國人的 特許登錄件數가 훨씬 많은 반면 後進國은 外國人的 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餘他 開發途上國과 마찬가지로 新發明, 新技術에 대한 研究開發投資의 不振과 技術蓄積의 低位, 頭腦人力의 活用不振 등 여러가지 要因으로 發明特許登錄의 80%以上을 外國人이 占하고 오히려 先行技術을 改良한 小發明(實

用新案)에 의존하는 趨勢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나 經濟規模에 맞추어 技術人力을 適切히 最大限으로 活用하기 위해서는 先進技術 가운데 우리가 時急히 活用할 수 있는 것만을 選別하여 導入하는 한편 獨自의 人 技術을 發明·考案해서 產業發展에 寄與하도록하는 政策的 配慮가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국가에서 長期的 目標 아래 汎國民的 發明意識構造의 段階的 改善과 發明雰圍氣의 造成을 위해 政府, 企業, 發明家, 關係團體가 有機的으로 協力할 수 있는 發明獎勵制度의 補完과 發明獎勵事業의 擴大方案이 提示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② 發明支援制度의 必要性

우리나라의 發明史를 大略的으로 살펴 보면 13世紀의 高麗瓷器와 金屬活字의 發明을 그 嚆矢로 하여 世宗大王(1442年) 때의 測雨器, 海時計, 물時計 그리고 宣祖大王 때의 거북船 등 各各 人類史上 최초의 것을 發明하여 술기에 찬 祖上의 業을 發揚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빛나는 業績과 天賦의 才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當時 이러한 發明들을 傳承할 수 있는 發明獎勵制度가 없었기 때문에 世界的으로 活用되지 못하고 史實로서만 남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數世紀의 空白期間을 거쳐 우리나라 發明制度의 創始라 할 수 있는 舊韓末의 韓國特許令이 1908年 8월에 公布됨으로써 發明獎勵를 위한 意慾이 싹틀 수 있는 時期가 있었다.

그러다가 日帝 36年이란 空白期를 거쳐 解放이듬해인 1946年 부터 特許法에 根幹을 둔 特許制度가 마련됨으로써 오늘에 이르는 發明獎勵의 搖籃期를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時點에서 볼 때 그 동안에 施行해 온 發明保護法이나 發明獎勵運動의 推進結果가 그렇게 滿足스럽지는 못했다.

다만, 어려운 與件 속에서 지난 1977年의 特許廳 發足を 契機로 汎國民的인 發明獎勵施策을 펴기 위하여 韓國特許協會로 하여금 國內에 등록된 內國人的 發明考案中에서 優秀한 것을 嚴選하여 優秀發明賞을 表彰하고 또한 이들 우수한 발명을 外國에도 많이 出願할 수 있게 出願을 啓導하는 등 企業이나 個人發明家の 發明意慾을 북돋아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韓國特許協會는 創立以來 계속하여 全國民의 發明意識構造의 改善과 底邊擴大를 위해 그 基本이 되는 자라나는 初·中學生을 대상으로 每年 發明글짓기 또는 發明漫畫 等の 懸賞募集을 實施하여 전국에서 數千의 學生들이 應募하므로써 優秀한 豫備發明家를 輩出하는 등 民間團體에서의 發明思想의 底邊構築을 위한 보람있는 事業을 展開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너무도 廣範圍한 발명장려사업을 財政的 뒷받침없이 堪當하기에는 民間團體로서는 벅찬 느낌이 있어 同事業을 專門的이며 効率的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次元에서 制度的으로 支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發明支援制度는 一國의 百年大計로서 底邊에 깔려있는 國民의 發明思想을 昂揚·鼓吹시켜 누구나가 發明意慾과 발명에 대한 높은 關心을 가질 수 있겠음 끌어올려서 個個人의 아이디어發想을 產業과 連結시켜 經濟發展에 寄與하는 重且大한 役割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 ③ 發明獎勵事業의 活性化

하나의 아이디어發想이 技術性和 產業性 및 그

作用效果에서 認定을 받아 發明特許 또는 考案으로 權利를 設定하여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할 때까지의 어려운 過程을 達成하려면 많은 時間과 資金 그리고 勞力이 所要되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個人企業의 힘으로 堪當하기 어려운 問題들이 뒤따르게 된다.

具體的으로는 아이디어의 着想을 위한 意慾과 體驗을 갖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生活周邊에서 發生하는 變化와 必要(needs) 그리고 不便과 그 解決에 대해 關心을 갖는 態度和 習性を 키워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무드를 全國적으로 擴散하여 그 底邊을 넓혀 나간다면 發明의 重要性和 그 필요성을 머리속에 깊이 새겨 成人으로서 如何한 職業을 갖더라도 發明은 技術革新과 技術進步, 나아가서는 經濟發展의 核이 된다는 것을 깊이 認識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資金力이 없어 發明技術을 企業化하지 못하는 個人發明人은 資本家와의 合作 또는 技術提供 등을 할 수 있고 企業에서는 發明技術의 產業化를 위해 研究開發投資를 擴大하게 될 것이다.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토록 發明을 獎勵해야 한다는 當面目的達成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政府的 次元에서 段階別로 併行하여 發明獎勵事業을 支援해 줄 것을 提言하는 바이다.

#### 가. 第1段階 發明獎勵事業

發明獎勵의 基本이 되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를 위한 環境造成이 앞서야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發明獎勵事業은 國家의 百年大計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발명의 重要性을 일깨워주는 制度부터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初等學校의 教科書에 그 重要性을 비취 주고 中·高의 科學이나 技術科目에도 發明으로부터 科學기술이 이루어진다는 歷史的 事實 등을 내용에 담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大學의 學課程에 特許科目(工

業所有權概論, 工業所有權法 總論 및 各論등)을 設定하도록 關係當局에서 積極 勸獎하는 文教政策이 所望스럽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行政 및 司法考試에도 應試科目으로 設定하여 特許審査官과 特許審判官을 養成, 輩出한다는 長期的 眼目에서의 發明獎勵施策이 設計되어야 한다.

한편 初·中學生을 대상으로 學科目에서 또는 發明이나 科學文庫 등에서 익힌 知識과 平素의 體驗이나 實技 등을 통한 아이디어의 發想을 나타내는 發明作文, 發明漫畫, 發明품을 會國에서 懸賞募集하여 展示 및 冊字로 엮어 널리 紹介하고 優秀한 것은 政府나 關係團體에서 施賞하는 發明獎勵事業은 從前과 같이 散發的으로 몇몇 機關에서 推進할 것이 아니라 政府의 支援下에 關係民間團體로 하여금 專門性을 살려 一元化하면서 總力을 기울이는 것이 効果的이라 할 것이다.

發明獎勵의 歷史가 近 1世紀에 이르는 日本의 實例를 보더라도 始初부터 初·中高生, 大學生, 敎職員 등을 對象으로 한 發明振興表彰事業, 展示事業은 關係民間團體인 日本發明協會가 主管하여 傳統있고 活潑하게 推進해오므로써 世界에서 으뜸가는 出願國이 될 수 있는 底力을 培養하고 있으며 通產省, 特許廳, 科技廳 등 關係部處에서 나아가서는 日本國 天皇까지도 發明獎勵事業支援에 配慮를 아끼지 않고 있다.

#### 나. 第2段階 發明獎勵事業

發明人口의 底邊擴大를 통한 發明環境의 造成과 併行하여 第2段階로 推進해야 할 當面課題는 發明家の 權益을 擁護하고 그들의 士氣를 높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憲法 第21條에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지며 著作權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서 保護한다」고 하는 發明保護條項을 嚴然하게 明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精神에 立脚하여 우리나라 特許法 第1條은 發明을 保護·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歩, 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産業의 發展에 寄與하게 함

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發明保護法에서도 發明家の 保護·育成을 目的으로 發明品の 生産, 輸出 및 普及을 獎勵·支援한다는 趣旨를 밝혔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法律로 保障하는 目的을 어느 정도 達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發明人들의 士氣를 북돋아주고 發明意慾과 矜持를 갖겠끔 精神의 支柱가 되는 發明記念行事조차 獨自的으로 갖지 못하고 商工의 날, 科學의 날에 分散되어 왔다.

일찌기 政府에서는 世宗大王時 世界最初의 測雨器가 發明되어 實用化되던 1442년 5월 19일을 오래도록 기리는 뜻에서 1957년부터 그날을 「發明의 날」로 제정하고 16년동안 記念行事와 各種事業을 展開해 오다가 지난 72년부터 商工의 날行事에 統合되었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昨今에 이르러 發明獎勵의 必要性이 國民들 속에 차츰 成熟되고 있는 무드에 副應하여 早速히 發明의 날을 復活시켜야 할 것이며 여러 機關에서 실시하고 있는 優秀發明人, 發明功勞者(企業人 등 敎職員, 學生들에 대한 施賞을 綜合하여 學國的으로 發展시키고 나아가서는 發明展示會등도 發明의 달(發明의 날이 포함된 달)에 開催하여 널리 觀覽시켜 汎國民的으로 認識시켜 發明契機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龐大한 事業은 그 規模나 性格으로 보아 民間關係機關의 힘만으로는 아주 벅차므로 政府의 財政的 支援이 隨伴되어야만 所期의 成果를 擧揚할 수가 있다.

둘째는 發明의 企業化 내지는 權利의 實施許與 및 讓渡 등의 促進을 위해서 現存 支援制度나 法令 등을 改善·補完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새로운 支援對策이 政府의 次元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물론 發明人은 國家가 獨占權까지 相當期間 保障해 주는 가운데 그 活用에서 追求하는 利潤을 目的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發

명의 實施率이 낮고 따라서 우수한 발명이 死藏 되기 쉬운 條件下에서는 어느 시기까지는 국가에서 技術的 價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保護育成할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나 財政的으로 支援해 주어야만 국가가 바라는 新技術開發과 지속적인 技術蓄積에도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난 58년부터 66년까지 8년동안 施行하다가 租稅減免規制法에 묶여있는 發明保護法을 復活시켜 發明獎勵法 또는 發明獎勵保護法 등으로 名稱과 目的을 발전적으로 바꾸어 國家産業發展에의 寄與度, 經濟性, 技術性 등 多角度로 價値判斷을 하여 審査를 強化하므로써 그 對象이 되는 發明品에 대해서는 稅制上 受惠를 받을 수 있는 劃期的인 發明獎勵施策이 時急하다고 본다.

또한 資本力이 없는 發明人에 대해서도 企業化 前段階의 試作品 生産에 필요한 施設이나 資源은 貸與(試作品을 擔保로) 한다든지 試作品生産 共同施設을 갖추거나 代行生産機關에 依賴해 주고 그 費用은 一定額을 政府에서 造成하는 發明獎勵(振興) 基金에서 回轉通用토록 하는 金融的 支援制度를 檢討,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個人發明의 技術程度나 水準에 맞추어 關聯中小企業과의 合作이나 實施誘引을 위해 發明의 實施企業에 一定期間 程制惠澤을 주어 發明의 企業化를 提高할 수 있는 方案도 考慮해 볼

만하다.

세계, 우수발명의 外國進出, 라이선스의 流通 圓滑化를 위해 海外出願의 助長, 海外展示會에의 出品獎勵를 政府에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費用補助를 해주어야 하는데 特許廳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出願補助는 限度를 더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補助率도 현재의 50%보다 더 引上하여 實費의 認定細目を 擴大해 주어야 한다.

또한 優秀發明品の 라이선싱을 促進하고 技術輸出의 市場을 넓히기 위해서는 世界各國에서 개최되는 發明展示會 또는 新기술전시會에의 出品費用을 一部 補助해주므로써 個人發明家和 中小企業의 參加意慾을 높여줄 수가 있다.

끝으로 新技術의 企業化를 促進하기 위해 技術開發促進法에서 準備金의 積立과 그 사용에 대한 稅制上 惠澤, 技術開發資金의 支援制度가 있으나 個人이나 零細한 發明人, 零細企業者들이 利用하기에는 어려운 點이 많으므로 관계법의 補完으로 이들의 受惠範圍를 넓혀나갈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여 주는 것이 所望스럽다.

그밖에도 科技處에서 設立한 技術開發(株)의 融資條件도 緩和하여 發明人들이 活用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國家 百年大計를 爲한 發明獎勵事業의 強力推進을 위하여 官民이 合力하여 邁進하여야 할 것이다.

밝고 깨끗한 정의 사회 건설에

스스로 앞장섭시다.